

전북 전·현직 단체장들 줄줄이 법정으로

김호수 전 부안군수, 인사베리 이어 뇌물수수 구속수감

김제·익산·고창도 비리·선거법 위반 혐의 잇단 재판

전북지역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리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호수 전 부안군수는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달 초 구속됐다. 검찰은 이 공사는 25억원이면 충분한데도 35억원 규모로 진행돼 형세를 낭비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말 인사비리로 징역을 살고 출소했으며, 또다시 비리 혐의로 수감되는

불명예를 썼다. 지난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강수 전 고창군수도 자위봉사자를 가장한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수천만원의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군수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지난 4월 미등록 선거운동원 60여명에게 선거운동 시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이 중 28명에게 460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 지역신문 발행인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한수 전 익산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기자 2명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19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견식 김제시장은 관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 증명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구수)씨 회사의 가축 보조사로 14억6000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경제적

인 지원을 받은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판정했다. 이 시장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비리 발생의 가장 큰 이유는 지방관력이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사회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권한이 독립된 감사기구나 옴부즈맨 제도가 필요하고 주민소환을 통해 해서라도 올바른 지방자치를 지켜내려는 유권자들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창=고훈석·부안=김민준기자·연합뉴스

기자 노트

여수-고흥, 형제의 마음으로 상생을



주 각 중 사회2부 기자

고흥군민들은 최근 국가 지명위원회의 '팔영대교' 명칭 부결로 자존심이 몹시 상해 있다. 팔영대교는 지난 4월 29일 전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팔영대교로 심의결정 됐으나, 지난 6월22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고흥과 여수시 등 양자치단체간 분쟁이 있어 협의 후 재심의하라는 사유로 부결처리되면서 지역갈등을 초래고 있다. 고흥은 지난 4월13일 20대 총선에서 고흥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데 실패하면서 상심이 큰 상황에서 실상가상으로 여수 지역구 국회의원도 국회지명정보위원장을 만나 지명철회를 요구한 끝에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흥군민은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후 고흥군민들은 '팔영대교를 지켜내자'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수백개를 군 전역에 설치하는 한편 고흥군민과 출향한우들을 중심으로 팔영대교 지지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조직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실 '팔영대교'란 명칭에 얽힌 속내만 들여봐도 고흥지역민의 속상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흥~여수간 해상교량은 11개인데 이 중 10개는 여수지명으로, 유일하게 고흥을 상징하는 지명이 들어간 '팔영대교'(고흥 영남면~여수 적금도 잇는 총 길이 1340m)는 지난 2004년 교량건설을 시작한

면서 조기 결정됐다. 당시 전남도에서 명칭제안을 요청받은 고흥군은 고흥에 들어서는 초임이라는 점에서 고흥대교로 명칭을 고민했으나, 군민공모를 통해 고흥의 명산인 팔영산의 이름을 딴 '팔영대교'로 정했다. 이후 팔영대교라는 이름은 전남도와 고흥군은 물론 여수시에서도 사용돼 왔다. 전남도지명위원회도 고흥 팔영산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명산으로 상징성이 높아 국명이 쉽게 교량 위치를 추측할 수 있다며 명칭을 팔영대교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수시는 최근 갑자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명칭은 섬 이름으로 정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를 들어 '적금대교'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 여수와 고흥을 합친 '여흥대교'나 '팔영·적금대교'로 하자며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여수시의 움직임에도 고흥군과 고흥군의회 등 고흥 지역사회는 다리를 하나 때문에 바다를 이웃한 형태 도시 여수와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고흥군민들은 더 이상 여수시와 반목을 감동을 바라지 않고 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수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이유다.

전북도 인권센터, 내년부터 운영

전북도 인권센터가 내년 설립될 전망이다. 전북도 인권위원회는 20일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2017~2021년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인권기본계획의 핵심사업은 인권센터 설치·운영이다. 인권센터가 설치되면 인권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과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 장애인 인권상담조사를 하게 되며 2017년부터 10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인권도시 기반조성, 맞춤형 인권제도 및 행정체계 수립, 사회적 약자 인권정책 강화, 도민 참여형 인권 거버넌스 구축 등 4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해 인권보호를

증진하기로 했다. 전북도 인권위원회는 인권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2017년 '인권헌장 제정 도민위원회'를 구성한 뒤 '전북인권헌장'을 제정하고, 2018년 선포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본계획은 전북연구원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도민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쳤다. 이강호 전북도 차지행정국장은 20일 "인권기본계획 수립은 행정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의 인권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권센터가 설치돼 사업을 추진하면 도민의 인권체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하루 체조로 치매 예방 남원 하주농촌건강장수마을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치매예방 체조 공연을 펼치고 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항중)는 주천 하주마을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으로 소일거리 창출사업과 생활체조교육, 치매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과 마을환경 정비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남원=정규식기자 igs@

군산 역사 알릴 '어린이 해설사' 찾아요

초등학생 문화재 해설사 모집 군산지역 초등학생들이 오는 8월 13~14일 진행되는 '군산야행(鰲山夜行)' 행사에서 군산사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직접 문화재 해설사로 활약한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22일까지 구 군산세관 본관 외 5개소 문화재 해설을 담당할 '초등학생 문화재 해설사'를 모집한다. '초등학생 문화재 해설사'는 아이들 스스로가 내 고장의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초등학생 4~6학년 20명을 모집한다. 초등학생 문화재 해설사로 선정된 학

생들은 군산여자고등학교 역사동아리(은고지선)와 군산제일고등학교 역사동아리(국환) 학생들과 함께 문화재에 배치된 군산지역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아이들의 시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김봉곤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아이들이 문화재 해설사가 돼 직접 관광객에게 문화재를 설명함으로써 문화재를 아끼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군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군산의 역사를 알리면서 지역에 대한 애호심을 갖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박규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부안 성황산 숲길서 쉬어 가세요

부안군 성황산이 힐링의 숲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부안군은 "군민의 행복과 찾고 싶은 힐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성황산 일원에 숲길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안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0.6km 구간에 새로운 숲길조성을 위해 선형계랑 및 안내표지, 노선정비 등을 했으며,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난간 및 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 현재 4km

의 생활권 숲길을 관리하고 있다. 부안군은 성황산 내에 걷고 싶은 메타세콰이아거리, 피톤치드를 몸과 마음으로 향유할 수 있는 라이프 펜백 숲을 비롯한 동백 숲, 백합나무 숲 등을 조성하고 '오복오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또 5만5200 분의 야생화를 식재해 좋은 관광명소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부안=김민준기자 jun@

군장항 준설공사 내년 3월 완공

군산해수청, 수역 측량 돌입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된 군산·장항항(군장항) 항로 준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돼 내년 3월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일 "선박입·출항과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한 '군장항 유지 준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일대 수역 측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측량작업을 마치면 내년 3월까지 65억원의 들여 항로 주변 58만㎡의 준설작업을 할 예정이다. 준설구간의 평균 폭은 10.5m며 특히 항로 입구부는 13.5m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준설지역은 6부두 접근항로 16만1000

㎡, 장항항 진입항로 19만4000㎡, 1·2·3부두 14만7000㎡, 해양동 물양장 주변 4만8000㎡, 장항수협 부잔교 주변 1만3000㎡, 장항 도선장 주변 1만9000㎡다. 군산해수청은 6부두 항로가 준설되면 1000TEU급 컨테이너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해지고 군장항 항로 안전과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입출항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심확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도 군장항 활성화와 수심확보를 위해 준설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규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소재지(신주택/구창고) 매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 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가가능 매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축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통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 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온창고 매 8억4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통정리 담 7,966㎡ 4차선국도로 투자유망 매9억원
4.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배과수원 7,934㎡ 혁신도시 근거리 투자 유망 매 4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접 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6.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종 2차선도로변 농림 지역 22억원
7. 나주시 노안면 담 4,000㎡ 2차선도로접 계획관리지역 공장, 창고 적합 매 5억2천만원
8. 나주시 봉황면 축석리 전 24,795㎡ 2차선도로변 교차로 생산관리 지역 전원주택지 적합 매 18억원
9.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면소재지 담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 물가공적합 매 2억 2천만원
10.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 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흥군 안암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황번승 3억3천
- 담양군 봉산면 외우리 600여㎡ 상교부근 1억천
- 신안군 지도읍 바닷가 관리 지역 전 13662㎡ 농장·귀농생활 적합 1억
- 화순군 도곡면 들들강변 전망교 교푼이 좋은 땅 3694㎡ 전원주택 3~4세대 개발적합 광주에서 20분거리 4억7천

투자·매도·교환

- 차고지 공장 창고 적합 관산구 송화동 유수 흥탈 부근 1446㎡ 1억4천
- 경관이 최고 좋은 나주시 다도면 국도점 접충지등 5451㎡ 티옴하우스식 빌딩·시설·요양시설등 적합 대충 5억4천 매도 9억2천
- 서구 생촌동 2중주거지 1651㎡ 빌라등 적합 은행 14억 평당 350만원
- 무안군 양문면 면사무소 인근 국도점 1312㎡ 은행 2500 매도 6천
- 관산구 송화동 관리지역 19621㎡ 노인시설등 적합 평당 35만원/20억천
- 월산동 다지구 주택 대지 206㎡ 6세대 매도 4억원
- 무안군 해례면 국도점 주거지 1347㎡ 은행 1억 매도 2억원
- 해남군 산포면 소재지 주거지 866㎡ 공사지가 0이하 매도 1억6천
- 월산동 무지중 건너편 소변도로 대지148㎡ 상가주택적합 1억원
- 남구 양과동 그린벨트와 대지 9958㎡ 대지1013㎡ 포항 15억
- 월산동 2차선 도로 준주거 309㎡ 건물 신축용 은행 1억5천 매도 3억4천
- 나주시 노안면 금리대 대지 767㎡ 전원생활 적합 7천만원
- 월산동 농성초등학교 후문 건너편 소변도로점 2중주택 주택태종용 대지 313㎡ 건평 155㎡ 임플등적합 2억 6500만원 은행 5천만원
- 완도군 보림면 판선·전원생활 적합 1326㎡ 4000만원
- 전북 정읍시 신가동 428㎡ 원룸·다세대적합 1억7천

상가건물

- 광주역앞 모텔·대지 184㎡ 건평 652㎡ 은행 3억9천 교환가능 4억4천
- 유동 원동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룸5, 투룸7 인접 매도 7억
- 쌍촌동 대지 298㎡ 건물 567㎡ 원룸2 투룸10 인접 매도 8억6천
- 담양군 남면 광주에서 화순 온천 가는길 전망과 시설좋은 펜션 땅 1516㎡ 건물 335㎡ 은퇴생활 적합 객실8개 은행3억선 매도4억5천
- 유동 리모델링 된 모텔 토지 422㎡ 객실 28개 6층은 살림집, 신야 보일러 은행 5억 5천 명과 교환가능 8억3천
- 광양시 중동사태프리카 1층 22평 은행 2억7천 교환가능 3억3천
- 대이동 동부경찰서 부근 대지 235㎡ 건평295평 17억2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대지

투자 가치 좋습니다

-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 일반 상업지역/6차선 도로 접/현, 주차장
-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 매매 - 협의
-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 층 조립식 건축 후
- ▶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 주인직매 H.010-8829-6876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상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